



2011 나주 영산강길 걷기대회에 참가한 2000여명의 시·도민들이 나주영상테마파크 황포돛배 선착장을 출발 죽산보에 이르는 2.5km 구간을 걸으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산강 길 함께 걸으니 더 행복해”

나주 황포돛배 선착장~죽산보 걷기대회 성료

‘2011 나주 영산강길 걷기대회’가 지난 8일 오전 나주영상테마파크 황포돛배 선착장 일대에서 시·도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나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일보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함께 걷자, 가을속으로’란 슬로건으로 시민건강과 시·도민의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이른 아침부터 행사를 찾은 참가자들은 가족, 연인의 손을 잡고 나주영상테마파크 황포돛배 선착장을 출발, 죽산보에 이르는 새롭게 단장된 영산강 강변도로 2.5km 구간을 1시간 20여분간 걸으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풍물과가 앞서 걸으며 흥을 더했고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코스모스가 운치를 더했다.

또 영산강 물길을 따라 황포돛배

가 함께하면서 영산강을 터전으로 살아온 나주 시민들에게 옛 추억을 상기시켰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축사에서 “남 도민의 애환을 담고 흐른 영산강이 새롭게 단장돼 과거의 모습을 되찾았다”며 “앞으로 관광자원화를 통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자(8·동강초 1년)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엄종재(62·나주 동강면)씨는 “손자 손을 잡고 새롭게 조성된 영산강길을 걸으니 감회가 새롭다”며 “영산강이 1년 내내 풍부한

물이 흐르는 강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2일 오후 1시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광장에서는 ‘2011 담양 수목길 걷기대회’가 열린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죽산보 개방... 영산강 뱃길 다시 열려

영산강 뱃길이 34년만에 다시 열렸다.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총 사업비 1635억원을 투입해 나주시 다시면 일원에 죽산보 건설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8일 죽산보 개방을 기념한 ‘영산강 새롭길 맞이 죽산보 축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과

심평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김일평 익산국토청장, 박운영 전남지사, 임성훈 나주시장, 최인기 국회의원과 지역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왕건호 (100t 규모) 취항식과 풍물과 길놀이, 품바다행, 황포돛배 국악 한마당, 소년소녀합창단 축가, 걷기대회 등이 펼쳐졌다. 또 강변에서는

수상 자전거 체험, 제트스키 및 수상스키 퍼레이드, 황포돛배 승선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렸다.

특히 4대강 사업을 통해 탄생하는 전국 16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는 수문이 만들어졌다. 죽산보 탄생으로 영산강 뱃길이 열리면서 목포에서 죽산보를 거쳐 영산포, 승촌보까지 70km 구간에 유람선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됐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한진重 해고자 1년내 재고용”

한노위 권고안 마련

조남호 회장 수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한진 중공업 정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극적으로 권고안을 마련해 관찰했다.

한노위는 지난 8월 18일 ‘한진중공

업 청문회’까지 열어 조남호 회장을 상대로 사태 해결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노사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비공개회의를 거

듭하며 ‘해고 근로자 1년 내 재고용’이라는 권고안을 만들었고, 조 회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던 한노위는 오후 들어 조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맹공을 펴부으면서 국감장은 ‘제2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스티브 잡스는 조 회장보다 더 부자이지만 세

계인이 주모하는 반면 조 회장은 국

내에서도 숨어다녀야 한다”며 “이 사

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세청, 금융

감독원, 검찰 등이 관여하는 국정조

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자유투어

광주지점 062)371-3757

고품격!
초특가 상품 [준5성급]
- 타사대비 비교불가! -

**호남지역
출발**

무안출발 아시아나항공(OZ)상품
[10/1~11/30출발(출발요일:화,금)]

북경,만리장성 4일 399,000원
북경,만리장성,명13릉 5일 459,000원

무안출발 동방항공(MU)상품
[10/1~11/30출발(출발요일:월,수,목,토)]

상해,항주,소주 4일 419,000원
상해,항주,횡산 4일 479,000원

상해,항주,횡산,삼청산 5일 579,000원
상해,장가계,주가각 5일 949,000원

예/약/상/담 350-6226

마감 임박 20석 한정 단하루!

10월 15일 무안공항 출발 방콕전세기!!

399,000~

전통 관광5일 589,000원
고품격 JAU+ 관광5일 799,000원
품격 골프5일(54H) 1,099,000원

광양훼리 큐슈3박4일 199,000 원
8/28~12/21(매주 수,일출발)

서울시장 보선에 묻힌 ‘맹탕국감’

모니터단 평가, 의원 불출석·무성의 질의

지난 7일 끝난 18대 국회의 마지막인 이번 국정감사는 준비부실로 인한 ‘부실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예상과는 달리 국감을 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극단적인 정쟁 국감에서 벗어나 여야 의원들이 국가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질의에 집중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평가였다.

우선 이번 국감은 예전 국감과 달리 의원들의 두드러진 불출석과 함께 무성의 질의, 국감 중단 등 불성실한 국감태도가 드러났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수감 태도와 자료제출 거부가 줄을 이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통령 즉근비리, 대규모 정전사태, 영화 ‘도가니’가 일으킨 장애인 인권문제,

저축은행 비리문제 등이 거론됐으나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빌어 현장에서 수집한 새로운 이슈나 내용보다는 이미 피감기관 보고나 신문기사 등을 근거로 질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지난 6일 행안위의 충남도와 충남경찰청 국감에서는 오전 10시 국감장에 나타난 의원은 7명에 불과하고 3명은 1시간 징역, 1명은 아예 불참했다. 질의도 덕담 수준에 머물고 일부는 서면질의로 대체해 감사일정을 2시간 만에 종료했으며 이후 현장 시찰에는 2명만이 참석했다.

또 일반 현안 질의도 과거 국감에서 피감기관 보고에서 나왔던 내용을 자료만 그대로 생산하거나 통계만을 바꾸어 이전 국감 질의를 ‘재탕’, ‘삼탕’하는 질의가 많았다는 비판이다.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수감태도와 자료제출 거부 등도 ‘부실국감’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 국정감사NGO(비정부 기구) 모니터단의 김대인 단장은 9일 “의원들의 국감 참여가 저조해 일부 상임위는 국정감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였다”며 “총 감사대상 기관이 563 개로 지난해 516개보다 많이 늘었지만 감사시간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그러나 “한미 FTA 등 국가현안 사업에 대한 여야의 정립된 입장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했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면서도 해킹 등의 사고에 무력했고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적발된 점 등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조영택·이용섭·김재균 국감 우수의원에

경실련, 18명 선정

광주·전남에서 조영택·이용섭·김재균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201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 3명 의원을 18명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상임위별로는 ▲법사위 : 이준석 ▲정무위 : 유원일·조영택 ▲기획재정위 : 이용섭·이정희·이한구 ▲외통위 : 구상찬·원혜영 ▲국방위 : 신학용 ▲환경위 : 장세환 ▲문화위 : 김재윤 ▲농수산위 : 김우남 ▲지경위 : 김재균 ▲보건위 : 최영희 ▲한노위 : 이미경·홍희덕 ▲국토위 : 강기갑·김진애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각각 선정됐다.

2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선정된 조영택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



조영택 의원



이용섭 의원



김재균 의원

대책을 촉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3년 연속 경실련 선정 우수의원에 뽑힌 김재균 의원은 9월 정전사태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전력의 총체적인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돋보이는 활약을 했다는 평이다.

4년 연속 우수의원에 뽑힌 이용섭 의원에 대해 경실련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 문제에 대해 조세부담률을 근거로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물가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정책 실패를 꼬집고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국회 대정부 질문 21일까지 연장

여야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고려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일정을 조정하

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1일 정치 분야,

12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3일 교육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각각 진행하고, 기재부장관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대정부질문 일정을 20~21일까지 연기하도록 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초특가 상품 - 10,11월 출발기준 -

- 자유투어만의 특별가격 -

유럽	동남아	중국	미주/남태평양
서유럽3국(프,스,이) 8일 1,690,000원~ 서유럽5국(웅프리우) 10일 2,090,000원~ 홀쇼핑HIT 동유럽 3국 7일 1,790,000원~ 멜크 동유럽5국9일 1,290,000원~	방콕,파타야 5일 449,000원~ 세부 4/5일 349,000원~ 보라카이 직항 5일 559,000원~ 싱가폴 5일 659,000원~	북경4일(5성급호텔) 269,000원~ 홀쇼핑HIT 상해4일(풀옵션) 349,000원~ 홀쇼핑HIT 홍콩4일(4성급호텔) 449,000원~	미동부+캐나다 완전일주 9일 2,690,000원~ 미서부 미리개년+미동부 완전일주 13일 3,290,000원~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1,649,000원~
터키 7대도시 완전일주 9일 1,690,000원~ 알펜وا+서유럽6국12일 1,790,000원~ 스페인,포르투칼10일 1,990,000원~ 이집트,그리스,터키 11일 2,190,000원~	5성급 카보디아 5일 599,000원~ JAU+ 베트남 카보디아 6일 549,000원~ 베트남 북부 5일 449,000원~	계림(이강유람,관암동굴)4일 449,000원~ 서안,구체구5일 1,149,000원~	호주,뉴질랜드남북섬 10일 1,990,000원~ 노립 미서부 태평양일주9일 1,390,000원~ 3대캐년 미서부 완전일주 1,690,000원~